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신구공신상회제명도》*

홍선표

I. 머리말

洪善杓

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명예교수
한국미술연구소 이사장
한국회화사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의 《신구공신상회제명도(新舊功臣相會題名圖)》 병풍은 선조 37년(1604) 음력 10월 28일과 29일(이후 월, 일은 모두 음력)에 걸쳐 거행된 신구 5공신들의 회맹의례 중 상회연(相會宴)을 기념해 제작된 것으로, 공신 회집 기록화로서 가장 오래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현존하는 조선 후기 이전에 왕명으로 제작되어 하사된 행사기록화 병풍으로도 최초이며, '제명도'라는 표제가 적힌 화적으로도 유일하다. 그리고 당시 공신회맹의례에 참여했던 권응수 집안에 전해 온 이와 같은 내용의 유물이 '태평회맹도'란 명칭으로 보물 제668-3호로 지정되어 국립진주박물관에 위탁되어 있는데,¹ 동아대 석당박물관본과 달리 전서체

* 이 논문은 《신구공신상회제명도》의 진단상태 보존 용역을 맡은 고창문화재보존으로부터 '인문학적 고찰' 연구 의뢰를 받아 작성한 것이다.

** 필자의 최근 논저: 「국사형 미술사의 허상과 '진경산수화의 통설」, 『통설의 탄생』,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8. 10; 「조선말기 평생도의 혼례이미지」, 『미술사논단』 47, 2018. 12; 「석남 이경성의 미술사 연구」, 『미술평단』 132, 201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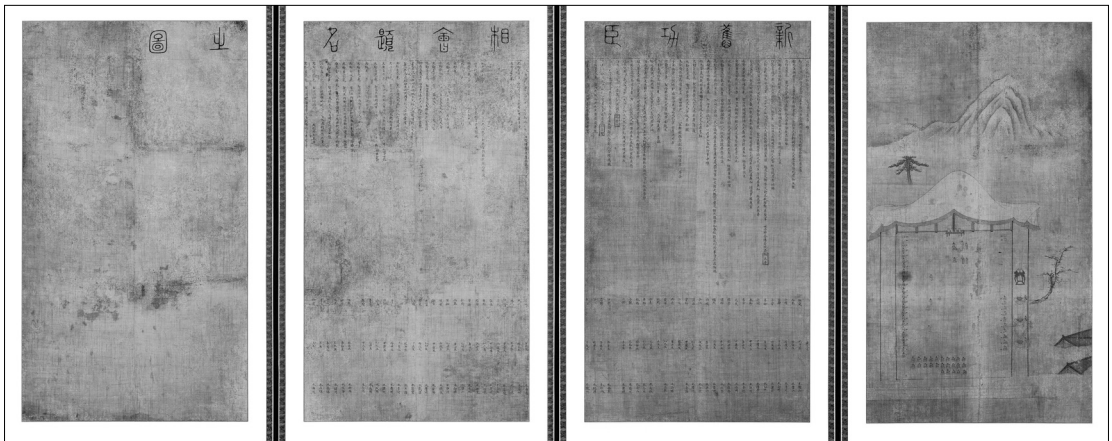
1 국립진주박물관 위탁본은 표제가 없고 박락으로 좌목의 일부가 탈락된 상태이다. 이 병풍에 대해서는 신 율호, 「태평회맹도의 역사적 배경」, 『미술자료』 85(2014. 6), pp.80-93 참조.

의 표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조선시대를 통해 공신녹훈은 모두 28회 시행되었으며, 천여 명이 책봉되었다가 300인이 삭탈 또는 적몰되었다.² 책훈된 공신들은 경복궁 북쪽의 회맹단에 모여 국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고 천지신명께 고하는 회맹의식인 공신회맹제를 거행했으며, 행례 후의 음복연(飮福宴)=회맹연과 상회연에 참석하였다. 《신구공신상회제명도》는 회맹제 뒤에 열린 상회연 장면을 나타낸 그림 1폭과 참석 공신들의 간략한 인적사항 및 표제를 3폭에 적고 병풍으로 꾸민 것이다. 뒤에서 다시 언술하겠지만 《신구공신상회제명도》의 기록화는 회맹제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상회연 장면을 담은 것이다. 《태평회맹도》 병풍을 회맹제 기록화로 본 것은 잘못이며 명칭도 맞지 않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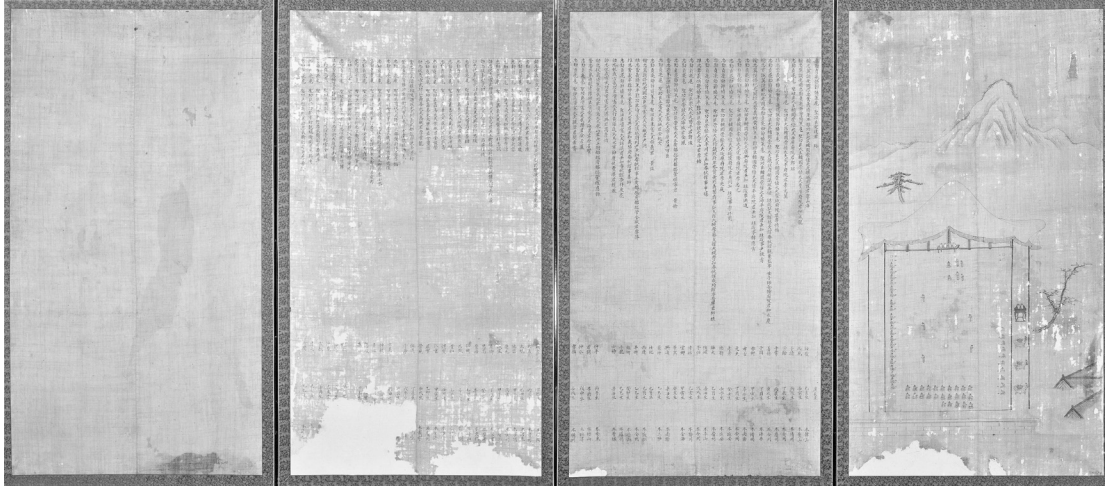
현재 조선시대 공신 관련 기록화는 4종 5건이 전한다. 이미 알려진 《신구공신상회제명도》 및 《태평회맹도》와 <녹훈도감선사어선연회도(錄勳都監宣賜御膳宴會圖)>(금호문화재단), <공신교서부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가 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좌리공신계회도>(일본 개인소장)이 포함된다. <녹훈도감선사어선연회도>는 광해군 5년(1613) 위성공신 등을 책훈할 때 실무를 담당하던 녹훈도감 관원들의 노

1
《신구공신상회제명도》
병풍
1604년경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2 차장섭, 「조선시대 공신의 책봉과 성격」,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편, 『조선의 공신』(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pp.264-275 참조.

3 신윤호, 앞의 논문, p.84 등에서 '태평회맹도'를 공신회맹제 장면을 묘사한 그림으로 보았다.



2
 《태평회명도》 병풍
 1604년경
 국립진주박물관 보관

고를 치하하기 위해 왕이 베푼 연회에 참석한 것을 기념하여 제작된 것이며, <공신 교서부도>는 영조 4년(1728) 분무공신 13명에게 교서를 내리고 선운을 베푼 두 장면을 종축의 한 화면에 각각 그린 것이다. 표제와 좌목이 결실된 상태인 <좌리공신 계획도>는 성종 2년(1471) 책봉된 좌리공신 중 10여 명이 야외에서 사적인 회회를 갖고 조성한 것인데 화기에는 '성화 7년'의 간지가 있으나 16세기 후반에 이모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공신상회연 장면을 담은 <신구공신상회제명도> 병풍도¹⁾은 현존하는 공식적인 공신회맹 관련 행사기록화로서 유일하며, 보물로 지정된 <태평회명도>²⁾보다 격식을 갖추고 있어 더욱 소중하다.

II. 선묘조의 공신녹훈과 회맹의례

선조년간(1567~1698)에는 인조 때와 함께 가장 많은 다섯 차례나 공신 훈호가 내려졌다. 선조 23년(1590) 1월의 평난(平難)공신과 8월의 광국(光國)공신, 선조 37년(1604) 6월의 호성(扈聖)공신 및 선무(宣武)공신과 청난(淸難)공신이 그것이다. 평난공신은 선조 22년(1589) 정여립의 모반(실제는 무고에 의한 것이 큼)을 평정하는 데 공이 컸던 22인에게 내린 것이며, 광국공신은 명나라의 『대명회전(大明會典)』 등에 잘못 기재된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종계(宗系) 기록의 개정을 위한

200년간의 노력을 해결하는 데 공을 세운 20인을 책훈한 것이다. 호성과 선무공신은 1592년에 발발하여 전후 7년간 계속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왜군의 패퇴와 명나라 원병의 철수로 1599년 종결됨에 따라 책훈문제가 선조 34년(1601)부터 논의되다가 3년 뒤에 결정되었다. 호성공신은 임진왜란 때 왕을 의주까지 호종했다가 환도하는 데 공이 있는 신하 86인을 책봉한 것이고, 선무공신은 전쟁에서 무공을 세웠거나 명에 사신으로 가서 명군의 참전을 이끄는 데 공적이 많은 18인에게 내린 것이다. 그리고 왜란의 종전을 위해 명과 일본이 화의 중이던 1596년 이몽학이 일으킨 난을 토벌하는 데 공이 컸던 5인을 청난공신으로 녹훈하였다. 1604년 10월 28일과 29일에 열린 신구공신회맹의례는 이들 임진왜란 직전과 직후에 녹훈된 5공신 가운데 생존자 63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신에 책봉되면 왕을 모시고 충성과 단결을 피를 문혀 맹약하고 종묘사직과 천지신명께 고하는 회맹제와 회맹연 또는 상회연에 참석하게 된다. 이러한 의례는 태조 1년(1392) 9월 16일 조선왕조 최초로 책봉된 개국공신들이 9월 28일 여러 왕자들과 개경의 왕륜동에서 모여 맹약한 것을 효시로 시작되어, 경복궁 신무문 밖 북쪽, 백악산=북악산 아래의 회맹단=북단에서는 태종 10년(1411) 11월의 원종공신과 단종 1년(1543) 정난공신의 회맹제를 통해 제도화되었고, 회맹연은 태종 1년(1401)부터 시행되었다.⁴

회맹의례는 공신을 녹훈하고 관상감에서 길일을 택해 대개 한 달 내외에 회맹제를 하고 회맹연을 했으며, 거의 같은 시기에 교서와 녹권의 분급도 이루어졌다. 회맹제 날자가 정해지면 공신들은 참가하라는 왕의 교지를 받고, 의식일 7일 전부터 산재(散齋)와 치재(致齋)와 같은 재계(齋戒)를 하며 심신을 정화하였다.⁵ 2일 전에 회맹단 앞의 왼편에 서향으로 왕이 머물 천막인 악차(幄次)를 설치하고, 그 남쪽으로 공신이 대기하는 천막인 막차(幕次)를 세웠다. 1일 전에 제례에 사용할 희생동물과 회맹의식에 피를 취할 희생고기를 준비했으며, 당일에 회맹단 위의 천지신명 신주와 맹서문, 향로와 촛불 등을 진설하고 낮에 예행을 연습을 하기도 했다. 왕이 밤 9~11시인 해시(亥時) 무렵 거동하고 의식은 다음 날 새벽 1~3시 사이에 행했는데, 먼저 회맹단 앞에서 왕과 공신들이 네 번 절하고 왕이 동쪽 계단을 통

4 박용만, 『조선시대 공신회맹제』,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앞의 책, pp.289-291의 표1 참조.

5 공신회맹제 절차에 대해서는 박용만, 위의 논문, pp.288-289와 이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端宗實錄』 단종 1년 11월 20일조의 '會盟(義)와 『世祖實錄』 세조 3년 10월 27일조를 참조했다.

해 단 위에 올라가 천지신명의 신주 앞에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소나 개, 닭, 돼지와 같은 희생물의 피를 입 옆에 바르는 삽혈의식을 마지막으로 제례가 끝나면 왕은 일단 환궁했으며, 회맹연 또는 상회연이 이어서 열리거나 다음 날 열리고, 공신교서와 녹권의 분급과 분축연(分軸宴)이 일련의 의례로 이루어졌다.

선조년간에 거행된 광국공신과 평난공신 회맹의례는 늦어져 녹훈이 있는 지 6개월 뒤인 선조 23년(1590) 8월 25일 무렵 같이 행하였다.⁶ 회맹연은 다음 날 26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열렸으며, 함께 교서와 상물을 하사받았다. 그리고 《신구공신 상회제명도》 병풍과 관련된 녹훈은 선조 34년(1601) 4월 24일 이몽학 토벌 때 공을 세운 청난공신 등급 논의부터 시작되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못했으며, 1602년 7월 정왜(征倭) 공훈의 명호와 공신 선정 및 등급 문제 등으로 지연되다가 선조 37년(1604) 6월 25일 호성, 선무, 청난 세 공신의 “대봉공명(大封功名)”이 이루어졌다.⁷ 이들 3공신회맹제는 예조에서 8월 19일에 열 것을 아뢰었는데 9월 13일로 정했다가, 실제로는 10월 28일 밤늦게 거행되었다.⁸ 초겨울 야밤의 행사로 왕의 미령한 옥체에 손상이 있을까 우려해 친행을 만류하고 대행을 건의했으나,⁹ 왕은 자시(子時)가 시작되는 ‘3경 1점’ 즉 밤 11시 15분쯤 신무문 밖으로 나가 회맹단으로 갔으며, ‘5경 1점’ 즉 다음 날 29일 새벽 3시 15분경에 행례를 마친 뒤 ‘5경 3점’인 3시 45분 무렵 야금 해제를 알리며 쇠북을 33회 치는 ‘파루(罷漏)’ 때 환궁하였다.¹⁰ 그리고 그날 낮에 교서 1축과 백금, 구마(廢馬) 등의 상물(賞物)을 분급하고 신구 5공신을 대상으로 상회연을 베푸는 것으로 보인다.

6 『宣祖修正實錄』 선조 23년 8월 1일조에 회맹 관련 기사(“頒光國平難兩勳臣 祭告會盟如儀 賜賚有差 大赦國內 百官陳賀賜宴闕庭”)가 수록되어 있고, 『光海君日記』 광해군 4년 7월 6일조 기록에는 충훈부에서 당시 회맹문에 의거해 왕께 광국공신은 8월 16일, 평난공신은 8월 25일로 보고했다고 한다. 閔仁伯, 『苔泉集』 권2 「討逆日記」의 8월 25일조에 “上率新舊功臣 會盟于神武門外盟壇”으로, 26일조에 “行功臣會盟宴于仁政殿 賜教書廢馬銀幣”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보아, 평난공신 회맹의례는 25일과 26일에 걸쳐 행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7 『宣祖實錄』, 선조 34년 4월 24일조와 35년 7월 23일, 36년 2월 5일, 4월 28일, 5월 11일, 6월 25일, 37년 1월 6일, 2월 20일, 2월 22일, 3월 3일, 6월 19일, 6월 21일, 6월 25일조 참조.

8 신윤희, 앞의 논문, p.84에서 3공신 회맹의례가 10월 27~28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언급했으나, 『宣祖實錄』 37년 10월 26일조에 회맹의례가 28~29일에 있음을 아뢴 바 있으며, 이원익의 『李相國日記』에도 28일에 왕이 회맹제 제단에 거동했고, ‘越一日’ 즉 하루가 지나 회맹연 등을 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면 28~29일 양일간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9 『宣祖實錄』, 선조 37년 10월 26일, 27일조 참조.

10 『宣祖實錄』, 선조 37년 10월 28일조 참조.

Ⅲ. 《신구공신상회제명도》 병풍의 구성과 내용

《신구공신상회제명도》 병풍은 모두 4폭이다. 세로 110.5cm와 가로 248cm 크기의 현대 병풍틀로 개장되었지만, 현존하는 조선 후기 이전의 궁중 행사 기록화로서 유일하게 족자나 화첩이 아닌 4첩 병풍으로 이루어졌다. 제1폭에 왕의 법운을 하사받는 상회연 장면이 그려졌으며, 제2폭과 3폭에 참석자 좌목인 제명록과 전서체로 표제를 써넣었고, 마지막 폭은 빈 화면인데 상단에 표제의 끝부분인 ‘之圖’가 적혀 있다.

제1폭의 〈신구공신상회연도〉^{도3}는 백악산을 배경으로 커다란 차일을 치고 왕이 하사한 선은(宣醞)으로 행사를 거행하는 장면을 묘사했으며, 궁궐 북쪽의 송림과 군자 또는 절개를 상징하는



3
〈신구공신상회연도〉
《신구공신상회제명도》
병풍 제1폭

소나무와 계절을 나타내는 한목(寒木), 그리고 운무에 싸인 전각 지붕만을 그려 넣었다. 기존 연구에서 화면 하단의 축석 기단을 회맹단으로 보고 회맹제 장면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지만,¹¹ 앞서 언급했듯이 회맹단 위에는 천지신명 신주와 맹서문, 향로와 촛불 등이 진설되고 국왕만이 올라가 의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제단 위에서 연회를 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회맹의례에 참석했던 이원익(李元翼)의 「이상국일기(李相國日記)」에 회맹제가 시작된 다음 날 왕이 친림하여 궐내에서 교서와 상물을 반사한 다음 “경복궁 옛 뜰에서 하사연을 베풀었다”고 기술한 것처럼,¹² 상회연은 경복궁에서 열린 것이다.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타기 전에는 회맹연 등이 근정전이나 사정전(思政殿)에서 주로 열렸기 때문에 전각이 없어진 이

11 신윤희, 앞의 논문, pp.83-84 참조.

12 “十月二十八日 上行會盟祭于神武門外祭壇 世子率諸功臣百官並參 越一日上親臨頒教及賞物于闕庭 賜宴于景福宮舊庭”, 李元翼, 『李相國日記』, 『稗林』(탐구당, 1969 영인)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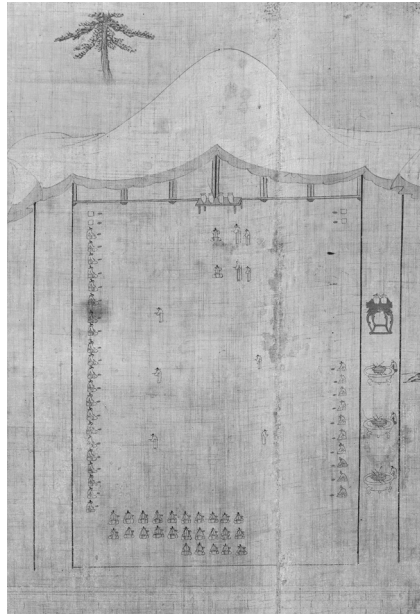
들 건물 터에서 거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747년 <친림광화문내근정전정시시도(親臨光化門內勤政殿庭試時圖)>⁴의 근정전 3단 기단과 백악산의 배치 방향을 비교해 보면, 1단 기단 축대와 좀 더 좌측 방향에서 조망한 백악산을 묘사한 <신구공신상회연도>의 행사장은 사정전 터가 아닌가 싶다.

같은 날 열린 어좌 옆과 앞에 보안(寶案)과 교서안을 설치하고 공신들을 등급마다 위치를 달리 해 겹줄로 배열하여 교서를 반사한 의례에 대해서는 실록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상회연에 관한 기록은 소략하다. 이항복(李恒福) 등이 '신구공신상회연'에 참석한 후 선조에게 올린 사은의 '전문(箋文)'에 의하면 왕의 '법온(法醕)'을 하사받아 충훈부 주관으로 '약행(略行)' 즉 간략하게 거행되었던 것 같다.¹³

제1쪽에 재현된 상회연은 장방형의 다듬돌로 쌓은 기단 위의 건물터에 푸른색 밑단을 두른 대형 차일장(遮日帳)을 기다란 버팀 기둥인 차일죽으로 높게 받혀 설치해 조성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⁵ 차일 북쪽 상단에 붉은색 다리가 달린 병장을 쳐서 상위(上位)임을 나타내고, 그 앞의 긴 진작탁(進爵卓) 위에 왕이 내린 '법

온'을 담은 주준(酒樽) 네 동이를 두 쟁을 연 채 나란히 진설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온'을 하사받았다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 내의원에서 참쌀과 멥쌀로 양조한 '내국법주(內局法酒)'가 아니었나 싶다. 진작탁 앞으로 나온 2명의 공신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법온'을 향해 감은부복 자세로 음양 배례하고 있으며, 우측에 위계적 차등에 따라 크고 작은 모습으로 시립한 행례 집사관이 2명씩 묘사되었다. '외선온과 '내선온' 하사를 나타낸 것이라면, 승지와 내시를 형용한 것일지도 모른다.

- 4
 <친림광화문
 내근정전정시시도>
 1747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5
 <신구공신상회연도> 부분



13 “於某年月日 略行新舊功臣相會宴于忠勳府 伏蒙天恩 宣賜法醕 臣等不勝感激之至 謹奉箋稱謝者臣恒福等”, 『宣祖實錄』, 선조 37년 11월 13일조.

‘범온’은 행사장 우측의 호족형 주칠 주정(酒亭)에도 봉준(朋樽) 즉 한 쌍의 백자 항아리가 뚜껑을 덮은 채 놓여있고, 그 앞으로 3개의 대형 화로 위에 ‘범온과 함께 내린 ‘찬품(饌品)’을 소주방 나인들이 데우는 광경이 보인다. 이항복이 ‘군갱(君羹)’ 즉 군왕의 국을 함께 맛보게 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면, 국일 가능성도 추측된다.

충훈부에서 주관한 상회연에 참석한 신구공신들은 모두 58명으로 1590년의 광국, 평난공신과 1604년의 호성, 선무, 청난공신들이다. 이들 5공신은 모두 146인인데, 당시 생존자는 제2쪽과 3쪽에 기재된 63명이다. 그중 58인만 묘사된 것은 회맹의례에 5명이 노환과 상중(喪中) 등의 이유로 불참했기 때문이다. 광국과 평난공신 이산해(李山海)와 광국·호성공신 류성룡(柳成龍), 호성공신 정탁(鄭琢), 선무공신 이운룡(李雲龍), 평난공신 남절(南截) 등이다. 66세였던 이산해(1539~1609)는 지난해부터 병이 위중했고 5개월 전 부인상을 당했으며, 63세이던 류성룡(1542~1607)과 79세의 고령이던 정탁(1526~1605)은 노환으로 은퇴하여 고향인 영남 하회와 예천에 각각 기거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다.¹⁴ 50대 초에 문의겸급 이후로 관직이 없던 남절도 64세로 노병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43세이던 이운룡(1562~1610)은 상중이라 불참하게 되었다.

14 류성룡의 경우 호성공신 녹훈을 사양하고 병 때문에 회맹의례에 참석할 수 없음을 상소한 바 있어 불참한 것을 임란공신의 책훈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언론에서는 이를 선조에 대한 ‘반기’로 확대해 기사를 쓰기도 했지만, 그는 실제로 1594년 이전부터 질병에 걸려 해마다 병세가 심해져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으며, 이후 계속 차자(箭子)를 올려 사직을 요청했다. 그리고 1598년 일본과의 화의(和議) 문제로 탄핵받고 파직 후 고향 하회(河回)로 내려가 은퇴했기 때문에 1602년부터 대두된 임란공신 녹훈논란에서 빠져있었다. 1604년 4월 복직되고 부원군이 되었으나 병환도 심하고 삭탈관작의 전력도 있고 하여 상소해 응하지 않고 치사(致仕)를 발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호성공신 책훈을 사양하고 상경하여 참석하기 힘들어 아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선조는 8월 10일에 “회맹제는 연기되었으니 차분하게 조섭해 상경하고 녹훈은 대사이니 더욱 사양해서는 안된다”는 회답을 보낸 바 있다. 이 무렵 향리 예천에 있던 정탁에게 병조의 청지기가 와서 전하는 절목 중에 “만약 지방에 있는 사람 가운데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은(원문 빠짐) (감영)에 나아가 받으라”(鄭琢, 『藥圃集』 권3 「寄子允偉」)고 한 것으로 보면, 먼 곳에서 병환이 있는 것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참석하지 않아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류성룡의 경우 처음에 훈적 사퇴를 상소하기도 했으나, 1605년 1월 1일 경상감사를 통해 교서와 상물을 복향 배례 후 받은 뒤 선조에게 감격의 전문(箋文)을 보낸 바 있다.(“輸忠翼謨光國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 大臣輔國崇祿大夫豐原府院君臣柳成疎死上言 恭遇三功臣會盟祭禮成 臣前緣衰病已極 不能自力奔 瞻望盛舉 日夜兢兢 近有人來自都下 賫奉到賜下教書一軸并白金七兩廐馬一匹表裏二端 續於今年正月初一日 本道監司遵奉有旨事意 使長吏存問 并致米豆酒饌 臣不勝感激”, 柳成龍, 『西厓集』 권18 「謝恩箋」) 이항복의 경우, 전쟁터에서 싸운 장수들에 비해 왕의 호종을 그냥 수행했을 뿐인데 녹훈 명단에 끼게 되었고, 더구나 1등 수공자(首功者)로 정한 것에 대해 분수로 보아 감당할 수 없었과, 자신이 대신의 지위에서 직책상 공훈자를 정하고 등급을 매기게 되어 여러 장수들의 공로가 신들(호종)의 아래에 놓일까 매우 우려됨을 개진한 것이다. 그 후로 자신의 책훈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한 바 없으며, 상회연에 참석해 ‘범온’을 하사받고 전양부원군 유영경과 함께 감격하여 사례의 전문을 왕에게 올린 바 있다.

상회연에 참석한 구공신 9명과 신공신 49명은 행례중인 중앙 상단의 2명 외에 좌측에 21명 우측에 10명, 하단에 25명이 제복(祭服)에서 관복인 '시복(時服)'으로 갈아입은 모습으로, 주칠원반을 각각 앞에 두고 허리를 다소 굽힌 채 엄숙하고 단정한 자세로 좌정해 있다. 좌측 맨 위쪽에 빈 방석만 2좌 그려져 있어, 중앙 상단에서 배례중인 공신 자리임을 짐작케 한다. 우측 상단에 별도로 묘사한 빈 방석 2개는 집사관의 자리로 보인다. 그리고 하단의 제3줄 좌열 다섯 자리를 비워 두어 5명의 공신이 불참한 정황을 사실에 입각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등 기록화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측면과 배면상의 인물들은 모두 도식적으로 묘사되었다. 좌차(座次)를 어떻게 배정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우측 10인의 관모나 공신 상태로 보아 지위가 보다 낮은 공신들인 것 같다. 명단은 품계 순으로 기재했는데, 좌차도 이를 따라 배정했을 가능성을 추측케 한다. 우측 하단 3인의 부복에 가까운 자세에 의거하여 이들을 사복시의 잡직인 이마(理馬)로 보기도 하는데, 호성 3등공신인 사복시 판관 전용(全龍)과 부사과 오련(吳連), 부사용 이희령(李希齡)으로, 액정서의 사알(司諫)인 충무위 부사과 홍택(洪澤)과 함께 명단에도 맨 끝 줄에 기재되어 있다. 견마위를 지낸 오련은 고양이 그림을 잘 그린 것으로 「동국문헌 화가편」에 이름을 남기기도 했다.

이들 신구 5공신 가운데 가장 많이 녹훈된 것이 호성공신 3등으로 86명이었다. 조선왕조 공신녹훈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이며, 당시 왜적과 싸워 공을 세운 선무공신 18명에 비해서도 4배 이상 많았다. 홍의를 입고 뛰어난 무공을 세운 곽재우를 비롯한 의병들은 녹훈과 포상에서 배제되었다. 왕의 몽진을 호종한 신하들을 더 배려한 책훈으로, 그중 24명이 내시이고 2명이 의관이었으며, 생존한 19명과 1명이 각각 참석했다.¹⁵ 의관 1인은 『동의보감』으로 유명한 내의원 어의(御醫) 허준(許浚 1539~1615)이다.

제2폭과 3폭에 상회연 참석대상이던 신구 5공신 63인의 공신호와 문무관 품계 및 작호와 관직, 자(字), 생년, 본관을 왕희지 서풍에 가까운 작고 깔끔한 소해체로 적어 넣었다.¹⁶ 문관은 정1품 대광보국승록대부에서 정3품 통정대부에 이르

15 『宣祖實錄』, 선조37년 6월 25일조 참조.

16 제2폭과 3폭에 기재된 63인 신구 5공신의 명단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품도록: 기록화·인물화』(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2016), pp.59-65에 수록되어 있다. 이들 명단을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다시 옮기

는데 마모된 글자 중 판독하지 못한 80자를 《태평회맹도》 병풍과 『厚光世牒』 등을 참조해 모두 보완했다. 새로 판독한 글자는 아래에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제2쪽

忠勤貞亮效節協策屬 聖功臣定遠君李浮 庚辰生
輪忠翼謨光國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大臣輔國崇祿大夫鵝城府院君李山海 汝受 己亥生 本韓山
輪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屬 聖功臣大臣輔國崇祿大夫豐原府院君柳成龍 而見 壬寅生 本豐山
忠勤貞亮屬 聖功臣大臣輔國崇祿大夫西原府院君鄭琢 子精 丙戌生 本清州
忠勤貞亮效節協策屬 聖功臣完平大臣輔國崇祿大夫完平府院君李元翼 公勵 丁未生 本全州
推忠奮義協策平難忠勤貞亮竭誠效節協策屬 聖功臣大臣輔國崇祿大夫鰲城府院君李恒福 子常 丙辰生 本慶州
忠勤貞亮效節協策屬 聖功臣大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全陽府院君 善餘 庚戌生 本全州
輪忠貞誠翼謨修紀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屬 聖功臣大臣輔國崇祿大夫海平府院君兼知 經筵事尹根壽 子固 丁酉生 本海平
輪忠翼謨修紀光國推忠奮義炳幾協策平難功臣輔國崇祿大夫清平府院君兼知 經筵事韓應寅 春卿 甲寅生 本清州
忠勤貞亮效節協策屬 聖功臣輔國崇祿大夫唐興府院君兼知經筵事洪進 希古 辛丑生 本南陽
忠勤貞亮效節協策屬 聖功臣輔國崇祿大夫完陽府院君李忠元 元夫 丁酉生 本全州
忠勤貞亮效節協策屬 聖功臣輔國崇祿大夫延陵府院君李好閔 孝彦 癸丑生 本延安
忠勤貞亮效節協策屬 聖功臣輔國崇祿大夫延原府院君李光庭 德輝 壬子生 本延安
忠勤貞亮效節協策屬 聖功臣崇祿大夫行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晉原君柳根 晦夫 己酉生 本晉州
忠勤貞亮效節協策屬 聖功臣崇祿大夫平川君兼春秋館事申礫 伯峻 辛丑生 本平山
推忠奮義炳幾協策平難功臣崇政大夫完山君李軸 子任 戊戌生 本全州
忠勤貞亮屬 聖功臣崇政大夫陽平君許浚 清源 己亥生 本陽川
忠勤貞亮屬 聖功臣崇政大夫寧城君金鳳 雲卿 甲寅生 本金海
忠勤貞亮效節協策屬 聖功臣崇政大夫五衛都總府都總管順寧君 景儉 子文 癸亥生
奮忠出氣合謨迪毅清難功臣正憲大夫寧原君洪可臣 興道 辛丑生 本南陔
忠勤貞亮屬 聖功臣正憲大夫眞城君金起文 斐仲 己巳生 本三陟
忠勤貞亮效節協策屬 聖功臣正憲大夫順義君 景溫 汝剛 己酉生
輪忠貞誠翼謨修紀光國功臣資憲大夫茂城君尹洞 而遠 己酉生 本茂城
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資憲大夫漢城府判尹兼知春秋館事五衛都總府都總管全城君李準 平卿 乙巳生 本全州
推忠奮義平難功臣資憲大夫晉興君兼知義禁府春秋館事姜紳 勉卿 癸卯生 本晉山
忠勤貞亮效節協策屬 聖功臣資憲大夫錦溪君兼知春秋館事朴東亮 子龍 己巳生 本羅州
効忠仗義宣武功臣資憲大夫黃海道兵馬水軍節度使豐壤君趙徹 士惕 辛丑生 本豐壤
効忠仗義宣武功臣資憲大夫濟興君 高彦伯
効忠仗義宣武功臣資憲大夫花山君兼五衛都總府都總管權應銖 仲平 丙午生 本安東
奮忠出氣迪毅清難功臣資憲大夫延昌君 朴名賢 君聘 辛酉生 本竹山
忠勤貞亮屬 聖功臣資憲大夫武陽君安彦胤 仲仁 戊申生 本耽津
忠勤貞亮屬 聖功臣資憲大夫驪原君閔希齋 孝伯 壬戌生 本驪州

제3쪽

効忠仗義宣武功臣嘉義大夫水原都護府使兼京畿防禦使廣南君李光岳 鎮之 丁巳生 本廣陵
忠勤貞亮屬 聖功臣資憲大夫月城君崔彦俊 大美 丙辰生 本慶州
忠勤貞亮屬 聖功臣資憲大夫清河君鄭英璣 太玟 己丑生 本河東
忠勤貞亮屬 聖功臣資憲大夫奈城君辛大容 德器 甲子生 本寧越
忠勤貞亮屬 聖功臣資憲大夫伽城君金秀源 選元 丙寅生 本全州

기까지 품계 순으로 표기한 데 비해, 무관은 정3품 절충장군에서 종4품 선략장군 까지를 끝줄 부분에서 섞어 기재했다. 제2쪽 7째 줄의 유영경(柳永慶)과 28째 줄의 고연백(高彦伯), 30째 줄의 박명현(朴名賢) 이름 위로는 네모 칸을 만들어 표시했다. 이들은 광해군 즉위 초에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고 훈적에서 삭제된 인물들이는데, 《태평회맹도》 병풍에는 그런 표시가 없다. 《태평회맹도》 병풍은 제3쪽의 첫째 줄에 기재된 명단에서 선무공신 ‘이광억(李光岳)’을 ‘이선광(李先光)’으로 잘못 써 넣기도 했다.

제2쪽에 32인을 적고 주선을 그어 구획한 상단부에 표제 앞부분인 ‘新舊功臣’을 전서체로 단정하게 써넣어 한호(韓濩 1543~1605)에 의해 비약된 사자관(寫字官)의 기량을 잘 보여준다. 일부에서 보필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제3쪽에는 31인을 적고 상단부에 표제 중의 ‘相會題名’을 썼는데, 공신 좌목의 곳곳이 마모되고 박락되어 일부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좌측부는 바탕 깃을 보완하여 새로 써 넣었는데 보존 상태로 보아 상당히 오래 전에 보수된 것 같다. 표제에도 보필 흔적이 있다.

忠勤貞亮 聖功臣嘉善大夫鰲原君朴忠敬 誠直 甲子生 本慶州
 効忠仗義宣武功臣嘉善大夫永昌君兼五衛都總府副都總管訓練院都正權俊 彦卿 丁未生 本安東
 効忠仗義宣武功臣嘉善大夫戶曹參判吉昌君權快 思省 癸丑生 本安東
 効忠仗義宣武功臣嘉善大夫文興君柳思環 景悟 辛丑生 本文化
 忠勤貞亮 聖功臣嘉善大夫晉昌君姜綱 仁卿 乙卯生 本晉山
 忠勤貞亮 聖功臣嘉善大夫和城君崔應淑 而激 辛丑生 本和順
 忠勤貞亮 聖功臣嘉善大夫花川君金禮禎 景和 乙丑生 本伊川
 忠勤貞亮 聖功臣嘉善大夫花城君趙龜壽 健叟 壬戌生 本橫城
 忠勤貞亮 聖功臣嘉善大夫盆城君金俊榮 仁吉 甲寅生 本金海
 忠勤貞亮 聖功臣嘉善大夫樂城君金鑿言 君實 乙卯生 本慶州
 効忠仗義宣武功臣嘉善大夫息城君李雲龍 景見 壬戌生 本載寧
 奮忠出氣清難功臣通政大夫行長興都護府使辛景行 伯道 丁未生 本高靈
 奮忠出氣清難功臣折衝將軍行忠清水營虞侯林得義 子房 戊午生 本平澤
 忠勤貞亮 聖功臣通政大夫行順天都護府使奇孝福 甲辰生 本幸州
 忠勤貞亮 聖功臣折衝將軍行忠武衛副司果崔世俊 士吳 丙申生 本慶州
 忠勤貞亮 聖功臣折衝將軍行忠武衛副護軍兼五衛將李士恭 仲敬 甲寅生 本慶州
 忠勤貞亮 聖功臣折衝將軍行忠武衛副護軍兼五衛將呂定邦 彦佑 乙巳生 本咸陽
 忠勤貞亮 聖功臣折衝將軍行平安虞侯李應順 善陵 乙丑生 本原州
 忠勤貞亮 聖功臣折衝將軍行忠佐衛副護軍柳肇生 應時 甲子生 本全州
 忠勤貞亮 聖功臣折衝將軍行龍騎衛副護軍楊舜民
 忠勤貞亮 聖功臣折衝將軍行忠佐衛副護軍金繼韓 繼叔 癸丑生 本延安
 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禦侮將軍忠壯衛大護軍南巖 仲秀 辛卯生 本宜寧
 忠勤貞亮 聖功臣通訓大夫行司僕寺判官全 龍 汝見 己未生 本臨河
 忠勤貞亮 聖功臣宣略將軍行忠武衛副司果洪澤 宣叔 辛酉生 本南陽
 忠勤貞亮 聖功臣保功將軍行龍騎衛副司果吳連 達之 己亥生 本石城
 忠勤貞亮 聖功臣禦侮將軍忠武衛副司勇李希齡 汝鷹 乙巳生 本海州

마지막 제4폭은 공백으로 남겨진 빈 화면에 상단부에만 표제의 마지막 부분인 ‘之圖’ 2자가 적혀있는데 보필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17세기 초에 행사기록화가 수록된 ‘제명첩’이나 ‘제명록’은 전하지만, ‘제명도’라는 표제를 붙인 실물 화적으로는 최초이며 유일한 사례이다.

IV. <신구공신상회연도>의 화풍과 작가

<신구공신상회연도>는 현존하는 ‘내사병풍(內賜屏風)’ 행사기록화로 가장 시대가 올라가고 규모도 크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식적인 공신 회맹의례 중의 상회연을 재현한 화적으로도 유일하다. 임진왜란 직후에 제작된 1600년의 <경자관반제명첩>(서울역사박물관)이나 1606년의 <금오계회도>(개인소장), 1608년의 <동도(同道)계회도>(개인소장)에 비해 더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당시 최고 수준의 화원에 의해 그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호성선무청난공신의궤』에 의하면 당시 공신들의 화상 제작이 1604년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김우령(金宇鈴)과 김업수(金業守), 이언홍(李彦弘), 이신흠(李信欽), 김응호(金應豪), 김신호(金信豪), 이홍규(李弘虬), 윤형(尹炯) 등 화원 8명과 김수운(金水雲), 이언충(李彦忠), 이정(李楨), 이징(李澄) 등 사화(私畵) 4명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아,¹⁷ 이들이 <신구공신상회연도> 제작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추측된다. 작가 문제는 뒤에서 산수도의 양식분석을 통해 추정해 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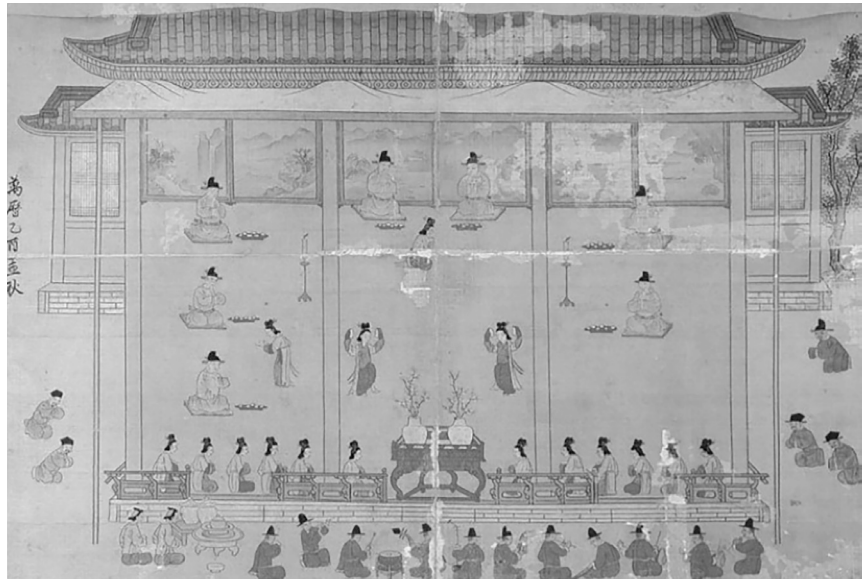
세로 110cm, 가로 61cm 크기의 삼베 바탕인 마본(麻本)에 수묵 위주로 묘사하고 부분적으로 담채와 중채(中彩)를 가해 나타냈으며, 정면 부찰(俯察)과 양관(仰觀) 등의 다중 시각으로 구성하였다. 화면 우측 하단의 전각 지붕은 평행사선구도로 이루어졌다. 경복궁 사정전 터로 추정되는 장소에 대형 차일을 치고 소병(素屏)의 병장풍을 진설했는데, 밑에서 올려다 본 높다란 차일죽(遮日竹)을 짙은 외선으로 길게 그어 마치 연회장 공간을 구획한 계선(界線)과 같은 인상을 준다.

전각부착이 아닌 독립설치 방식인 장전(帳殿)형식의 차일장(遮日帳)은 무명

17 권혁산, 『조선중기 <녹훈도감의궤>와 공신화상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66(2010. 6), p.70의 각주28 참조.

(白布)에 푸른색 단을 들렀다.¹⁸ 이처럼 차일 끝단을 ‘청염(靑染)’하는 제도는 태종 16년(1416)에 대두해 영조년간(1694~1776)까지 지속된 것이다.¹⁹ 차일죽이 밑에서 지탱하는 구조로 설치된 차일장은 드물게 ‘山’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세부 표현에서도 주름을 표시하지 않거나 몇 개의 선만으로 도식적으로 나타내던 16세기 중엽 이래의 양식에서 벗어나 좌우 양편으로 접힌 부분에 단축법을 구사하여 비교적 사실적으로 재현한 특징을 보여준다. 간결하면서도 섬세한 필치로 자연스럽게 양감을 증진시킨 이러한 화풍은 18세기 전반의 차일 양식에서도 보기 힘든 수법으로,²⁰ 차일죽의 1차원적 묘사법과 대조를 이룬다.

상연화장에 배설된 기물들은 임진왜란 직후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는 듯 채화를 꾀은 화준을 찾아 볼 수 없어 분위기를 더욱 엄숙하게 한다. 북쪽 상단에 상위를 나타내며 처진 ‘병장풍’의 붉은색 병풍틀 다리를 비롯해, 주칠의 호추형 주정 또는 주탁과 뚜껑이 있는 백자 봉준, 삼족형 백동 화로는 10년 전인 1585년에 제작



6

〈선조조기영회도〉
1585년
서울대학교 박물관

18 차일 설치의 유형에 대해서는 최지영, 『조선시대 궁중의례에서 사용된 차일의 기능과 특성에 관한 연구: 19세기 이후 중중연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 p.40 참조.

19 『太宗實錄』, 태종 16년 5월 1일조 참조. 차일장에서 푸른색 단이 사라지는 것은 1795년의 《화성행도병》 무렵이다.

20 조선시대 행사기록화의 18세기 전반 차일 양식에 대해서는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일지사, 2000), p.265 참조.

된 〈선조조기영회도〉^{도6}의 기물들과 유사하다. 〈선조조기영회도〉가 산수화 ‘화벽병(畵壁屏)’을 치고 있는 점이 다르고,²¹ 〈신구공신상회연도〉 화로의 삼죽을 시각 이미지에 맞게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 봉준의 삼각형 뚜껍의 양태는 1540년 〈미원계회도〉(국립중앙박물관)의 백자 쌍둥이와 더 닮았다.

참여 공신들을 백포풍에 가깝게 윤곽선 위주로 간략하게 나타냈는데, 형식적으로 반복하여 도식화된 느낌을 주지만, 해서체를 연상시키는 단정하고 정확한 필치로 깔끔하게 묘사하여 기록화로서의 또 다른 격조를 보여준다. 측면과 배면상의 경우, 전반적으로 조선 후기에 비해 상체를 조금 더 길게 표현했으며, 흑사모와 주칠원반의 색비 효과는 수목화에 주인(朱印)을 찍은 것과 같은 아취를 풍기기도 한다.

화면 우측 하단에 평행사선 구도로 배치된 전각은 정밀하게 묘사되었는데, 운무에 싸인 지붕만 나타났다. 이러한 양태는 1531년의 〈독서당계회도〉(일본 개인 소장) 등에서 대두된 것으로, 1550년의 〈비변사계회도〉(서울역사박물관)와 1581년의 〈유영수양관연명도〉(개인소장)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된 이래 17세기를 통해 성행하였다. 그리고 지붕의 가장자리 윤곽부를 길게 표현하는 수법도 1540년의 〈사옹원계회도〉(삼성미술관 리움)와 1550년의 〈관음32응신도〉(일본 지온인 소장)에서 대두하여 17세기를 통해 유행한 것이다.²² 화원들의 계화법(界畫法)이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유사한 양식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신구공신상회연도〉에서도 확인된다.

경복궁 옛터인 연회 장면의 외부 공간에는 지붕만 보이는 2채의 전각과 함께 소나무와 잎이 떨어진 한목이 한그루씩 그려져 있어, 16세기 계회축의 좌목 좌우로 묵매와 묵죽을 배치한 상징적 장치나 조선 초 산수화의 근경 구원(丘原) 위의 쌍송과 한목 모티프의 콤비네이션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나무는 경복궁 북쪽의 송림이나 격 높은 군자 또는 늘 푸른 충절을 상징하고, 가지만 남은 한목은 초겨울의 계절을 나타내려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열은 녹색과 갈색으로 담채를 가한 소나무는 좌우 대칭형의 가지에 붓끝으로 양엽점을 찍어 솔잎을 묘사하고, 등치는 몇 개의 세로 선을 그어 재현했다. 고담한 느낌을 주는 좌우 대칭형에 독필풍(獨筆風)의 양엽점은 16~17세기 소나무 수지법에선 보기 드문 수

21 ‘병장풍과 화벽풍에 대해서는 유옥경, 『조선시대 회화에 나타난 飲酒像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pp.59-60 참조.

22 16~17세기 행사기록화의 건물 계화양식에 대해서는 박정혜, 앞의 책, p.116 참조.



법이다. 1580년의 〈알성시은영연도〉(일본 요메이분코)에 한 그루 배치된 소나무의 좌우 대칭형과 1570년 〈독서당계회도〉(서울대박물관)의 사의체(寫意體) 소나무를 절충한 것처럼 보인다. 단정하면서도 필력이 느껴지는 양상한 가지뿐인 한목은 1550년 〈호조낭관계회도〉(국립중앙박물관)의 담장 밖에 배설된 잎떨어진 나무들의 수지법과 비교적 유사하다.

화면 상단부에는 한양의 진산(鎭山)인 백악산=북악산을 경복궁 옛터에서 열린 상회연의 주봉으로 그려 넣었다.^{도7} 행사기록화에서 북악산을 주봉으로 배치해 그린 것은 1531년의 〈미원계회도〉(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처음 대

두하여 1550년의 〈비변사계회도〉(서울역사박물관)와 1557년의 〈동궁책봉도감계회도〉(일본 개인소장), 1581년의 〈기성입직사주도〉(개인소장), 다니 분초(谷文晁) 문화생이 에도 후기에 모사한 16세기 후반의 〈관아후원계회도〉(일본 개인소장) 등으로 이어졌다.²³ 16세기 중엽까지 삼각형 모양에 4겹의 등줄기를 암부와 명부로 나타내다가 16세기 후반을 통해 4겹 능선의 음부에 세선 또는 단선점준을 가해 굴곡을 표현했다. 〈신구공신상회연도〉의 북악산은 16세기 후반 양식을 계승하면서, 산의 형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재현하는 한편, 이를 더 간결하게 묘사한 변화를 보여 준다.

그리고 산을 설산 이미지로 나타냈다. 그러나 당시 행사일인 음력 10월 29일까지 서울에 눈이 내리지 않았고, 첫눈은 음력 11월 28일이었기 때문에²⁴ 겨울 설산을 표현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1747년의 〈친림광화문내근정전정시시도〉^{도4}가

23 홍선표, 『조선전기의 계회도 유형과 해외소재 작품들』, 『조선회화』(한국미술연구소CAS, 2014), pp.358-367 참조.

24 『宣祖實錄』, 선조 37년 11월 28일조 참조.

음력 9월 19일 거행된 행사의 기록화인데, 이처럼 화면 상단의 북악산을 4겹 등줄기의 윤곽선에 간략하게 준법만 가하여 설산 이미지로 묘사한 것을 보면 산등성이의 골격을 강조한 수법이 아닌가도 싶다.

산기슭의 가장자리 외곽선을 가늘고 짧은 침형세수와 호초점을 섞어 정의하는 수법은 16세기 중엽 전후에 대두하여 점차 호초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1600년의 <경자관반제명첩>과 1608년의 <동도계획도>에 이르러 바느질 선처럼 규칙적으로 점열되기도 한다. <신구공신상회연도>는 단선 침형세수와 호초점을 섞은 양식에 산기슭의 굴곡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하여 변화를 주는 수법으로, 조선 전기 16~17세기의 산수 표현 가운데 1642년경으로 추정되는 간송미술관 소장 이징(1581~?)의 《산수영모화첩》 중의 <고사한연도(古寺寒煙圖)>⁸와 비교적 유사하다. 4겹 등줄기 윤곽선 부위를 표면 처리한 섬세한 단선점준도 이징의 산수화나 화조화의 바위 명부에 구사된 세선이나 묵점의 양태와 친연성을 느낄 수 있다. 한목의 경우도, 앞서 언급한 1550년의 <호조낭관계회도>와 비슷하면서 이징 《산수영모화첩》의 <설산심매도>의 수지법과도 상통된다.

당시 3공신의 화상 제작에 동원된 화원 가운데 이신흙(1570~1631)도 <세년계획도>(1604, 삼성미술관 리움)와 <사천장팔경도>(1617년 이전, 삼성미술관 리움)를 그리며 활동했는데, 그는 실경 산수화에도 능했지만 산수화보다 인물화에서의 명성이 더 높았다. 특히 ‘인상전사(人像傳寫)’에 뛰어나 붓을 들고 한번 그리면 거의 터럭도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고 하며, 당시 공신상의 대부분을 그가 그렸다고 했을 정도로 인물화로 유명했다.²⁵ 현존하는 그의 산수화 풍도 <신국공신상회연도>와의 유사성을 찾기 힘들다. 이정(1578~1607)의 전 창작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3공신의

8
이징
<고사한연도> 부분
1642년경
간송미술관



25 김영윤 편, 『한국서화인명사서』(예술춘추사, 1978), p.188, '이신흙조 所收『李氏家譜』 참조.

화상 제작에 참여한 화가들이 기록화 제작에도 동원되었다면, 현재 전하는 작품이 있는 작가 중에서 이징이 가장 유력하다고 본다. 《신구공신상회제명도》 병풍이 1607년 2월 열린 공신 중삭연(仲朔宴)에서 분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²⁶ 그렇다면 1605~6년 사이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국수(國手)’로 지칭되던 이징의 가장 이른 25세 무렵의 초기작이 될 수 있다.

V. 맺음말

선조 37년(1604) 음력 10월 29일에 경복궁 사정전 터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거행된 평난, 광국, 호성, 선무, 청난 5공신의 상회연과 생존 녹훈자 63명의 명단이 수록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신구공신상회제명도》 4폭 병풍은, 공신회연 기록화로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크다. 조선 후기 이전에 왕이 하사한 최초의 ‘내사병풍(內賜屏風)’이면서 ‘제명도(題名圖)’라는 표제가 적혀있는 화적으로도 유일하다. 임진왜란 직후에 제작된 기록화 중에서도 수법이 제일 섬세하고 16세기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차일장과 주봉인 백악산의 묘사에서 새롭게 진전된 사실력을 반영한 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당시 공신화상 제작에 동원된 화가들이 이 제명도의 회사(繪事)에 참여했다면, 산수화풍으로 보아 그중에서 17세기 최고의 산수화가로 명성을 날리게 되는 이징의 초기 작품일 가능성이 추측되어 더욱 각별하다.

주제어 keywords

기록화 documentary painting, 행사도 painting of ceremonial, 제명도 題名圖 painting of convocation of register, 조선 중기 회화 painting of mid-Joseon, 공신 功臣 meritorious vassal, 이징 李滄 Lee Jing

투고일 2019년 1월 31일 | 심사일 2019년 3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9년 4월 30일

26 신윤희, 앞의 논문, p.92 참조.

사료

『朝鮮王朝實錄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논저

- 권혁산 Kwon, Hyuk-san, 「조선중기 《녹훈도감의궤》와 공신화상에 관한 연구 The Nokhundog-am Uigwe and Portraits of Meritorious Subjects in the Mid-Joseon Period」, 『미술사학연구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 266, 2010. 6, pp.63-92.
- 박정혜 Park, Jeong-hye,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A Study of Documentary Painting of Court Ceremony in the Choson Dynasty』, 서울: 일지사 Seoul: Iljisa, 2000.
- 신윤호 Sin, Yunho, 「太平會盟圖의 역사적 배경 Historical Significance of Taepyeonghoemaengdo」, 『미술자료 Misuljaryo』 85, 2014. 6, pp.79-95.
- 유옥경 Yu, Okkyong, 「조선시대 회화에 나타난 飲酒像 연구 Study of the 'wine-drinking image' in Joseon paintings」,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h.D. diss., Ewha Womans University, 2011.
- 장서각한국학연구원 편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ress ed., 『조선의 공신 Meritorious Vassals of Joseon Dynasty』,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Su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ress, 2012.
- 최지영 Choi, Ji-young, 「조선시대 궁중의례에서 사용된 차일의 기능과 특성에 관한 연구: 19세기 이후 중중연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unction and Characteristic of 'Cha-Il(遮日)' through the Analysis of Royal Rituals(宮中儀禮) in the Joseon Dynasty: Focus on the Royal Banquets since 19c」,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h.D. diss., Hanyang University, 2009.
- 홍선표 Hong, Sunpyo, 『조선회화 Joseon Dynasty Painting』, 서울: 한국미술연구소CAS Seoul: Center for Art Studies, Korea, 2014.

*Painting of Convocation Register
of New and Old Meritorious Vassals,
at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Hong, Sunpyo

The *Painting of Convocation Register of New and Old Meritorious Vassals* (新舊功臣相會題名圖; Singu gongsin sanghoe jemyeong-do) is a folding screen with four panels owned by the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It had been created to commemorate the convocation banquet (相會宴; sanghoe-yeon) that was part of the Hoemaeng Ceremony, attended by five groups of new and old meritorious vassals, and held on the 28th and 29th days of the 10th month in lunar calendar in the 37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onjo (1604). It is the oldest and the largest documentary painting of a gathering of meritorious subjects. Moreover, it is the first extant documentary screen painting made and bestowed by royal edict, which predates the Late Joseon Dynasty period. The painting is also unique in having the word “Register” (jemyeong-do) in its title. Furthermore, it has the most refined technique among the documentary paintings produced immediately after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1592~1598). Even while inheriting the 16th-century tradition preceding it, its painting style is significant in reflecting new advances in verisimilitude in its depiction of the canopied tent and Mt. Baegaksan, the main peak in the background. Assuming that the painters employed to create portraits of meritorious vassals at those times had also participated in producing this documentary painting, and judging by its landscape style, this may be an early work by Yi Jing (李澄, 1581~?), who would become renowned as the best landscape painter of the 17th century.